

도내 업체, 대형공사 하도급공사 대거 수주

전주 에코시티 공동주택 신축·주상복합 건립 등
전진협 전북도회·전주시 합동 노력 결실 맺어

전주시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업체 분사 방문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에코시티15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민간 대형공사의 주요공정에 전북지역건설업체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협회가 지난해 전주시 관내에서 신규 착공한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등

대형건설공사는 에코시티 15블럭 공동주택 등 5개 공사로 연말 집계 결과 지역 업체가 5개 현장의 골조공사 전부를 수주했다.

이는 수주액만도 530억 원으로 지금까지 수주액 중 역대 최고액이며, 이로 인해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토목, 기계설비, 소방, 파일 등 주요 하도급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수주가 이어지고 있어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수주율은 더 증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실적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전주시 건축과 하도급관리팀이 one-team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홍보활동과 대형건설사 분사 방문 등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현장의 골조공사 5개 현장 전부를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상봉 시 건축과장은 "이번 지역업체의 하도급공사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은 앞으로도 하도급공사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회사 분사 방문 등 수주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예찰

서부지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효율적 방제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임실·구례군 및 남원시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중예찰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가소득 증대 지역농업활성화 최선”

이문구 신임 NH농협
고창지부장 오늘 취임

이문구 신임 NH농협 고창군지부장이 3일 취임한다.



이 신임 지부장은 “농생명식물산업의 중심도시이자 한반도 첫수도인 고창 품격과 역사문화 생태관광의 중심도시인 고창에 농협군지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어깨가 무겁다”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중앙회, 지역농협이 함께하는 지자체협력사업을 추진해 농업 고창 명품농산물의 판로확대와 부가가치를 제고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과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은행으로서 고객만족과 함께 고창군민의 든든한 금고은행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부장은 원주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 전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농협에 입사, 전북본부 여신관리팀 과장, 서울검사국 감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전기안전 정보 제공

전기안전공사, 영어·태국어 등 8개 국어 가이드북 제작·배포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다문화가정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공사 전기안전교육원은 지난해 10월, 다국어로 된 전기안전생활 안내 책자를 처음 발간하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지역 내 지원센터에 무료로 배포했다.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한 안내 책자에는 계절별 장소별 전기안전요령을 비롯해 전기재해 유형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생활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담

았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몽골어와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를 포함, 모두 8개 국어로 제작한 안내책자 4만부를 주한 외국공관에 배포하는 등 제공범위를 더욱 넓혔다.

교육원은 내년도 4만부를 추가 발간하여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확대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책자에 담은 자료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2022년 신년사

“농업에 대한 사랑, 농업경쟁력 키우는 힘”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경쟁하는 농업인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농촌진흥사업 현장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원에 중심의 디지털농업을 노지재배 작물로 확대하여 농업의 편리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벼·밀·콩 등 식량작물, 노지채소, 축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노동력 절감과 안정 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로 외래 품종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벼 품종인 ‘해뜰’과 ‘찰찬미’로 경기도 이천지역의 외래 품종을 대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치유농업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첫 자적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등 위험요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

로 삼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습니다. 이순(耳順)의 나이입니다. 나이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새해에는 국정과제와 역점 추진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여섯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농산물과 농업의 다양성 기반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농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촌진흥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의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촌진흥공직자들은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혁신해

야 합니다. 연구자는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동향과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은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국가가 꼭 해야 하는 것과 민간영역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협력과 협업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산업체, 대학,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농촌진흥기관은 첨단 연구 인프라와 전국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현장의 접점에 있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개청 6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다 함께 노력합시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힘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리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농업·농촌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을 나갔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전북 소비자물가 2.6% ↑

농축수산물 8.2% 올라

2021년 꾸준히 상승하던 소비자물가 동향이 전달에 비해 보합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전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9(2020년=100)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연간 품목성질별 동향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8.2% 상승했고, 품목별로는 농산물(8.2%), 축산물(13.0%)이 상승, 수산물(-0.7%)만 하락했다. 공업제품도 2.6% 상승했으며, 품목별로는 석유류(15.7%)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 부문은 1.9% 상승했고, 품목별로는 집세(0.3%), 공공서비스(1.4%), 개인서비스(2.4%) 등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연간 생활물가지수(3.4%), 신선식품지수(5.2%)가 각각 상승해 소비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1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희기자

전북도시가스는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새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가스안전으로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全北도시가스株式会社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40-7755)